

SK INDUSTRY Analysis



Analyst

김도하

dohakim@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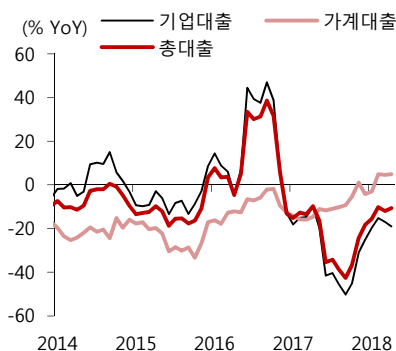
02-3773-8876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본문 그림 9)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연체채권 잔액 YoY 증가율 (추정) (본문 그림 10)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은행

4월 연체율: 일회성 거액 신규 연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안정적

국내은행의 4월 말 연체율은 0.59% (+5bp YoY)로 18개월 만에 상승을 나타냄. 이는 성동조선의 회생절차에 따른 영향이며, 해당 기업의 신규 연체 제외 시 연체율은 0.45% (-9bp YoY)로 하락세를 지속. 대출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연체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계 연체채권이 2018년 들어 YoY 증가하고 있으나 4Q16 이후 연체 잔액의 절대 규모가 2조원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당분간 은행업종의 대손 지표는 하향 안정화의 방향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국내은행 4월 연체율 0.59% (+5bp YoY)로 상승

국내은행의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9%로 전년동월대비 5bp 상승. 18개월 만에 YoY 악화를 나타냈는데, 이는 성동조선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신규 연체가 2.2조원 발생했기 때문. 이에 따라 대기업 연체율이 1.76%로 1.1%p YoY 상승했으며, 중소기업 연체율이 0.64%로 15bp YoY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10bp YoY 악화된 0.86%를 기록. 가계는 주택담보 및 그 외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9% (-2bp YoY), 0.46% (-2bp YoY)로 여전히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함 (그림 1~6 참조)

일회성 거액 신규 연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안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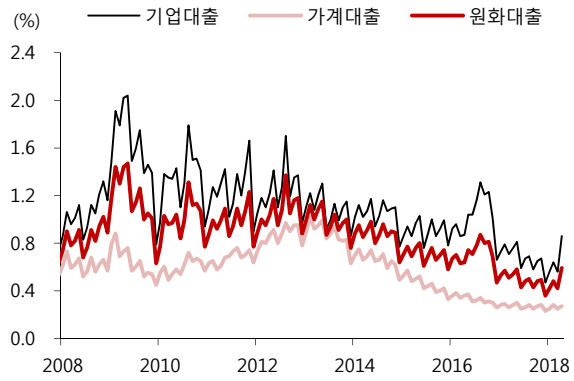
대기업 부문의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성동조선의 신규 연체를 제외한 은행 연체율은 0.45%(*)로 추산돼 전년대비 하락세를 지속함. 4월 말 연체채권 잔액은 9.0조원으로 14% YoY 증가했으나 성동조선 제외 시 14% YoY 감소해, 대출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연체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7). 가계 연체채권은 2.1조원 (+4.9% YoY)으로 추정됨. 수년간 감소해온 가계 연체채권이 2018년 들어 YoY 증가를 기록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4Q16 이후 연체 잔액의 절대 규모가 2조원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성동조선 신규 연체 제외 시: 총 연체율 0.45%, -9bp YoY / 기업 연체율 0.59%, -17bp YoY / 대기업 연체율 0.35%, -30bp YoY)

우려할 시그널은 아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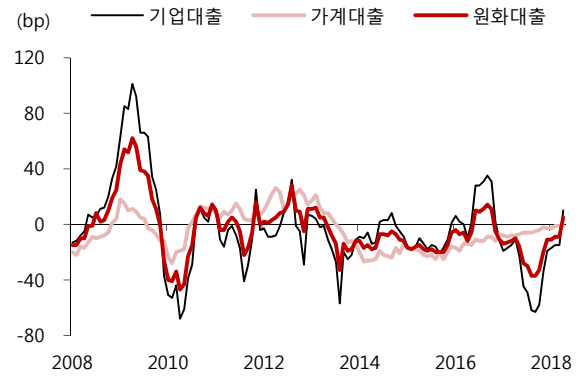
국내은행 연체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해 왔음. 대출금리가 상승 전환된 2016년 4분기 이후에도 월 중 신규 연체는 평균 1.2조원으로 2015년 및 2016년 평균인 1.7~1.8조원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대출금리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은행의 credit risk는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변수지만, 우려할 만한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당분간 은행업종의 대손지표는 하향 안정의 방향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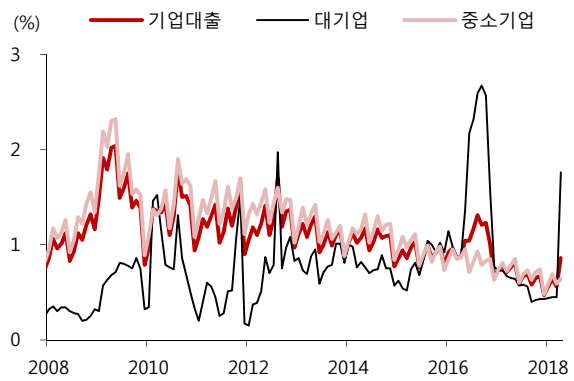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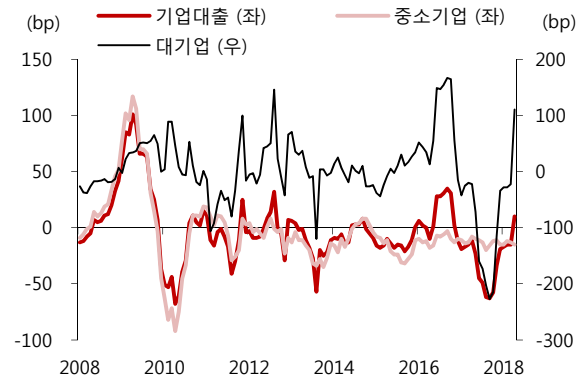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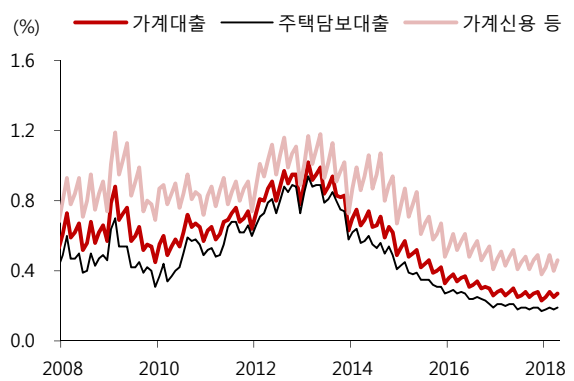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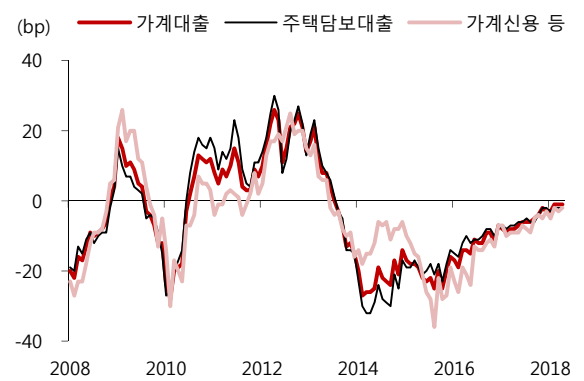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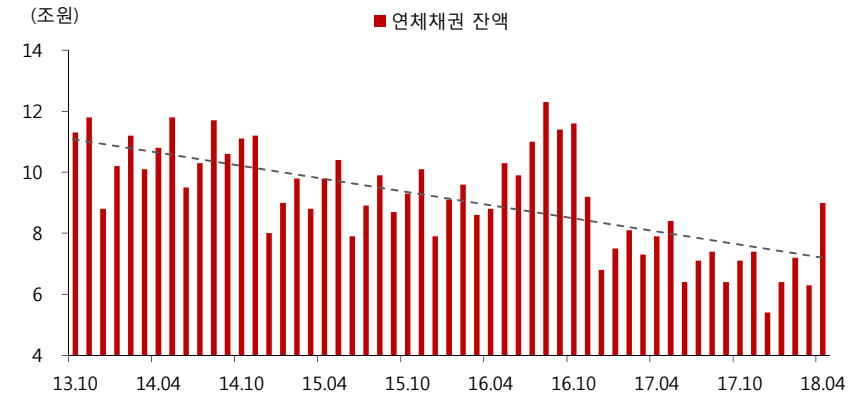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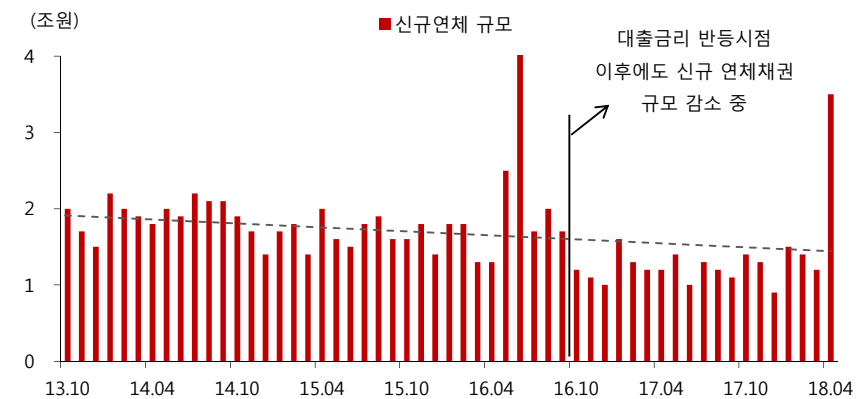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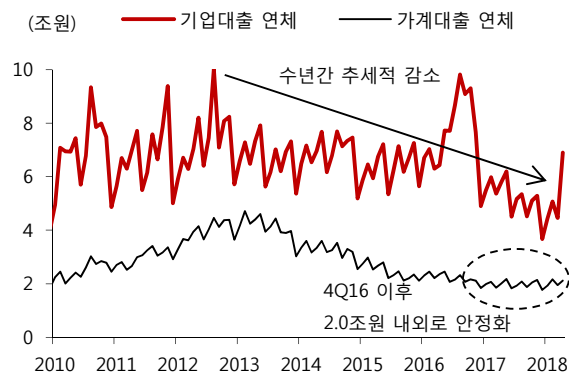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8. 국내은행 월 중 신규연체 규모: 대출금리가 상승 전환된 4Q16 이후에도 신규연체는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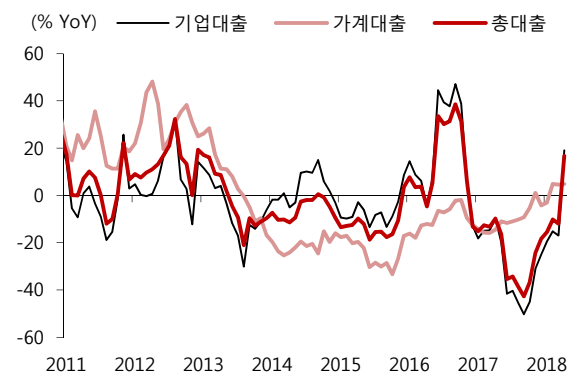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8 년 6 월 11 일 기준)

매수	90.98%	중립	9.02%	매도	0%
----	--------	----	-------	----	----